

이탈리아 포스까나 지역의 모리스(Moris) 와인

다양한 이탈리아 와인들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주)비노비노는 지난 11월 18일 압구정동 비노비노 바에서 특색 있는 와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로 모리스(Moris) 와이너리의 패밀리 마케팅 담당자 지올리오 파렌티니(Giulio Parentini)와의 만남이었다. 1971년 시작된 젊은 와이너리로 아버지가 처음 매입을 했다. 현재 포스까나에 두 개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데 기리가 약 400km 떨어져 있어서 매우 다른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다. 먼저 바다와 가까운 파도리아 뽀제띠(Fattoria Poggetti)는 점토질의 토양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시라 품종이 훌륭한 맛을 낸다. 이 밭의 규모는 420헥타르이며 그중 37헥타르에서 몬테레지오 디 마싸 마리띠마(Monteregio di Massa Marittima) DOC를 생산한다. 보다 내륙에 위치한 뽀지오 라 모짜(Poggio la Mozza)는 사암질의 토양으로 되어 있다. 총 56헥타르가 있고 그중 33헥타르는 모렐리노 디 스칸사노(Morellino di Scansano) DOC다. 포스까나 지방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DOC의 와인이라 특이했고 이곳에서 선보인 수퍼 투스칸들의 깊은 맛에 한 번 더 놀랐던 시음회였다.

